

약관(?)의 나이 신지애

김성수 · KBS 아나운서실 한국어팀장

세간의 주목을 끄는 뉴스가 참으로 많은 한 해였다. 미국에 진앙을 둔 글로벌 금융위기 문제를 비롯해서, 세종시와 4대강 사업 관련사안, 공공노조들의 파업 소식 등이 올 한해 마스크를 달군 뉴스들이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정치권과 노동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이 서로 반목 대립하며 만들어낸 뉴스들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때때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뉴스들도 전해져 우리를 기쁘게 했다. 피겨선수 김연아, 수영선수 박태환, 야구선수 추신수, 역도선수 장미란, 골프선수 양용은, 신지애 등과 같은 젊은 운동선수들이 한국인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린 소식들이다.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그 감동의 장면들은 참으로 기분 좋은 뉴스들이었다.

다른 종목도 그랬지만, 올 한해 미국 여자프로골프 LPGA에서 한국 선수들의 활약은 눈부셨다. 한국 선수들끼리 도합 11승을 거두면서 국위선양과 함께, 외화 획득에도 크게 기여했다. 신지애 선수는 한국인 최초로 상금왕과 다승왕 신인왕 등을 차지하면서, 순식간에 세계적인 스타대

열에 합류했다. 하여튼 미국 여자 프로골프중계를 보고 있노라면, 과연 이 대회들이 미국 대회인지, 한국 대회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그런데 때때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다, 우리 선수들의 활약 소식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을 맞곤 한다. 캐스터나, 해설자가 지나치게 감격하 나머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표현이나, 낱말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아나운서로 생활하다 보니, 귀에 거슬리는 내용이 들리면 뉴스에 집중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갖게 된 것이다.

얼마 전 케이블 텔레비전의 골프 중계방송을 시청하다 겪은 일이다. LPGA 톱10 안에 든 한국 선수들이 절반을 넘었다는 소식을 전하던 해설자가 적절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었다. 전달하는 내용에만 귀가 기울여지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나는 다시 한 번 사반세기에 걸친 내 직업의식을 발휘하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웠던 90년대 말 IMF 당시, 박세리 선수가 미국 LPGA US오픈에서 맨발의 투혼을 보이면서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박세리 선수가 우승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선수들을 흔히 박세리 키즈라고 하는데요, 그 박세리 키즈들이 어느새 자라서 박세리 선수처럼 미국에서 주목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신지애, 최나연, 김인경, 지은희, 박지영 선수 등이 바로 박세리 키즈인데요, ‘약관’의 나이에 큰 활약을 하는 모습이 참 대견스럽습니다.”

‘약관’이란 말은 원래 스무 살 남자에게만 사용하는 말이다. 그런데 박세리 키즈의 활약에 잔뜩 고무된 해설자는 여자선수의 나이를 일컬으며 ‘약관’을 쓴 것이다. 감격과 흥분의 상태에서, 방송인들은 표준어 규정과 어법을 유념해야 한다. 잘못된 화법으로 시청자들이 상황에 몰입하지

못한다면, 방송인은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들에게 결례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나이와 관련된 표현 중에서 성별에 따라 구별해서 사용해야 할 말들은 다음과 같다.

- 약관(弱冠) → 20세에 관례를 한 데서 남자 나이 스무 살을 말함.
- 이팔(二八) → $2 \times 8 = 16$ 인 데서 열여섯 살을 이르는 말.
- 방년(芳年) → 꽃다운 나이, 곧 20세 전후의 여자 나이.
- 묘령(妙齡) → 예쁜 나이, 곧 20세 전후의 여자 나이.
- 이순(耳順) → 60세부터 귀가 순해져 남의 말을 듣기만 하면 곧 이해된다고 한 데서 예순 살을 이르는 말.

누구나 완벽하게 말을 할 수는 없다. 방송을 직업으로 하는 아나운서들조차 때때로 실수를 하곤 한다. 그렇지만 대중을 상대로 방송을 하는 방송인들은 가급적 무심결에 저지르는 실수들에 대해서도 경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말을 잘 하기는 어려워도, 틀린 곳을 찾아내기란 어렵지가 않다. 방송을 오래하다 보면 자연히 듣는 귀가 발달하기 때문인데, 이것도 직업병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왕 이야기를 꺼냈으니, 내가 저지른 실수담도 고백해야겠다. 온 국민이 귀를 기울이는 올림픽 개, 폐회식 현장 중계 방송이나, 올림픽 메달 색깔을 결정하는 각종 스포츠 중계방송은 물론이고, 퇴근길의 시청자들을 목소리로 만나는 KBS 1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생방송 오늘'에서도, 나는 가끔씩 방송이 끝난 다음에 혼자 얼굴을 붉히는 경우를 맞곤 한다.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내뱉은 말들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다.

- 저희나라(X) → 우리나라(O)
- 후덥지근한(X) → 후텁지근한(O) :

● 내노라하다(X) → 내로라하다(O)

등은 지금도 흔히 자주 틀리는 말이다.

또한 함께 방송을 하는 해설자가 실수하는 경우, 대부분은 바로 정정을 하지만 바로잡기가 난감할 때가 있다. 분명히 잘못된 표현인 것을 알고 있는데도, 한껏 고무된 해설자 말의 오류를 지적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베이징 올림픽 게임에서 있었던 일이다.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냈던 선수가 경기에 출전을 하자, 나와 함께 방송을 하던 해설자가 “저 선수가 바로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장본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장본인’은 부정적인 의미의 사건을 일으킨 사람을 일컫는 말이므로, 이 경우에는 긍정적인 의미인 ‘주인공’으로 표현해야 맞는 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인가 하고 한참을 망설였다.

우리말에는 맞이한 상황에 따라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다.

긍정적인 말과 함께

- 맞다(생일을 맞았다.)
- 드디어(드디어 성공했다.)
- 아주, 무척(아주 좋아요.)
- 회자(그의 선행은 널리 회자됐다)

부정적인 말과 함께

- 당하다(사고를 당하다.)
- 끝내(끝내 숨지고 말았다.)
- 너무(너무 힘들어요.)
- 구설수(한동안 남의 구설수에 올랐다.)

언젠가 아침에 라디오 경제 프로그램을 들으며 출근을 하고 있는데 방

송에 출연한 리포터와 진행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주고 받았다

진행자 : “올해는 더위가 일찍 찾아올 것 같은데, 거리 표정은 어땠던가요?”

리포터 : “4월 초인데도 반팔 차림이 많았어요. 완전 여름 분위기가 나던데요,

특히 압구정에는 벌써 나시 차림도 등장 했어요.

강남에는 오렌지족이 많아서 계절과 유행을 앞서 가니까요.”

진행자 : “오렌지가 아니고 발음이 오린지가 맞지요” (웃으면서)

오렌지, 오린지 발언은 농담으로 여긴다 해도 ‘반팔’이나, ‘나시’와 같은 낱말을 쓰는 상황 속에서는 미간에 주름이 졌다. 아직까지 ‘반소매’를 ‘반팔’로 쓰는 대담함과 왜색 표현에 대해서도 관대함을 준 모양이었다. 이 기회에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은연중에 사용되는 일본어투의 의복용어를 한 번 더 짚어보고 싶다.

- (소데)나시 → 민소매, 소매 없는 옷
- 에리 → 깃
- 철부(바지) → 칠푼(바지)
- 땡땡이 → 물방울 무늬

KBS 아나운서실 한국어 팀장으로 올 한 해 동안, 나는 ‘막말 방송’과 밀도 끝도 없는 전쟁을 치렀고 현재도 치르고 있다. 근무시작부터 계속되는 무수한 회의와 언어 심의에서부터, 정부 외래어 심의, 가요 심의, 뮤직 비디오 심의, 수시로 걸려오는 시청자들의 항의 전화까지 2009년 현재 우리말이 겪는 몸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준다.

국회 문광위에서까지 논란이 된 ‘막말 방송’은 일단 문화관광체육부와 교육과학기술부등 정부 부처의 규제와 심의 강화, 방송국 자체적인 정화와 반성, 방송 출연자들의 각성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잠정적 결론

을 내렸지만, 나는 앞으로도 '막말 방송'의 파장은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장단음 무시나, 외래어 남발은 이미 우리말이 겪는 고전적 질환이며 출처를 모를 축약과 생략, 비속어 남발, 어휘합성은 환경 파괴로 인한 기형 동식물을 보는 듯하다.

인터넷과 휴대 전화의 발전으로, 우리말의 '막말' 현실은 점점 내용과 형식적인 면에서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 우리말의 현재 상태를 수질로 표현하자면, 5급수에서 6급수 사이 정도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생명력 끈질긴 물고기는 고사하고,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는 미생물조차 죽고 말 수질 상태가 바로 우리가 맞이한 언어 현실이 아닐까?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뱉어놓은 오염된 말들의 홍수 속에서 단체로 수장되어버릴 지도 모르겠다.

KBS 아나운서실 한국어 팀에서는 올 한 해 동안 막말방송 근절과 바로고 곱고 품위 있는 언어문화 정착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방송 진행자를 위한 세미나와 강연, 비전문 방송인을 위한 맞춤 교육, 방송언어 순화 자료집과 한국어 연구논문집 발간, 그리고 재외 동포방송인들을 위한 국내외 연수와 강의까지 각종 연구와 행사를 추진했다. BBC가 현대 표준 영국 영어의 모델을, NHK가 표준 일본어의 모델을 제시하듯, 공영방송인 KBS 방송언어는 한국어에 관한 글로벌 기준이 되려고 애쓰고 있으며 그 중심에 KBS아나운서실 한국어팀이 있다고 자부한다.

사반세기가 넘는 기간이 자라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의 아나운서라는 자부심으로 버텨온 직장생활이었다. 방송을 통해 듣는 소소한 표현이나, 낱말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서는 것이 내가 가진 직업병인데, 이제 나는 이 직업병을 밀천으로 도리어 우리말이 앓고 있는 속병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어야겠다.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그릇된 한국어 사용에 대해서 발끈 해야 할까?